



사랑하는 친구,동역자 여러분께,

며칠 전은 추석이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고국에서 맞는 추석은 아름다운 날씨와 함께 정겨웠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귀향이나 가족간의 모임을 자제하자는 메시지가 계속 있었지만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니깐요!

저희가 한국으로 나오기 까지 지난 두 달여 동안 저희에게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저희 신원 조회 재심 요청이 최종적으로 거부되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저희와 함께 신청한 다른 두 분의 사역자들의 요청도 거부되었습니다.

신원조회가 두 번 연속으로 거부되었다는 건 동일한 카테고리의 비자로 다시 신청하는 게 아주 어려워진다는 뜻이며, 동시에 빠른 시일 내에 그 나라를 떠나야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치과준비는 "일단 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로 출국을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항공편이 많이 없는데다 예약된 비행기도 자주 캔슬되어서 정확한 일정을 예상하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출국을 위해 필요한 72 시간 전 코로나 검사에서 제가 (신태희) 양성 판정을 받는 바람에 겨우 예약한 비행편을 취소하고 2 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거쳐야만 했지요.

사실 증상이 심하지 않았던 저는 제 상황보다 그때까지 스태프 중 한명도 코로나 검사를 통해 확진된 케이스가 없던 병원이 저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 아닐까 더 염려되었습니다. 코로나 환자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강한 시골지역의 특성상 병원에서, 그것도 외국인 스태프가 코로나 양성이나왔다는 소식에 병원에 대해 과장된 나쁜 소문이 돌고 환자들이 병원에 오기를 꺼리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역 보건담당 공무원들로 부터도 매일 몇 번씩 전화가 왔으니까요. 다행히 큰 동요나 문제 없이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양성 판정을 받고 처음 며칠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양성 판정 결과가 나오기 몇 시간 전 출국을 위한 출국허가 비자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라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저희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 하나인 빌립보서 4 장 6-7 절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며 저희를 세워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란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는 것이나 출국 허가 비자를 받는 것 같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임이 인정되고 실재가 되어 경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재검을 위해 요구됐던 2 주간의 자가격리 시간도 그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너무 수월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건 저희 뿐 아니라 저희의 상황을 알고 함께 손 모아주신 모든 동역자들의 기도에도 대한 신실하신 주님의 응답이었던 겁니다.

2 주의 격리 기간이 끝나고 다시 받은 검사에선 감사하게도 음성이 나왔고 극적으로 출국허가 비자도 받게 되어서 일단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위해 자체 제작한 실드를 쓰고 다카로 가는 비행기 안입니다.)

다시 2 주간의 자가격리는 필요했지만 모든 것이 풍성한 한국, 그것도 언니 집에서 보내게된 격리 기간은 아주 수월하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자가격리를 하는 저희에게 지방정부에서 보내준 음식들입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런데 문제는 그 때부터였습니다. 이제 부턴 뭘 해야하지? 언제까지 이 시간이 계속 되는거지? 한 달이나 지속된 격리 기간에도

저희 마음과 저희 생각을 늘 지키시던
하나님의 평화가 다 사라진 듯 했습니다.

저희는 우선 사역을 떠나고 이후에 저희
사역의 총리더가 비자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지만 조금씩 더 실망되는
얘기가 들려오고 그때마다 내면의 평화는
사그라져가고 그 자리를 불안감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간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의
계절에 들어 갔을 때 아버지께서는
기다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기다림을 위해 나를 선택하셨고 기다림의
때와 장소도 아버지께서 택하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기다림의 시간은
그분의 완벽하신 뜻과 사랑의 계획 있는
시간임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에 대해 묵상하며 읽게된 책
가운데 있던 한 구절, "아버지께서는 내가 잘
기다릴거라 믿으신다" 라는 말씀이 제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래, 모든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무엇보다 불확실하거나 불안정한 상태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굳이 나를 이런 기다림
가운데 두셨다면 그건 분명한 아버지의
뜻이 있으실거야. 그리고 내가 그 뜻을
깨닫고 잘 기다릴 수 있을거라고 아버지는
나를 신뢰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막하게만 보였던 기다림의
시간이 전혀 다른 빛깔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제게

뜻하시고 계획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
시간을 통해 제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선물을 잘 깨닫고 누리고 싶은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신원조회 거부의 상황을 겪으며 더욱
확실히 느낀 것 중의 하나는 저희 병원에서
점점 더 래디컬하게 외국인 사역자들의
역할을 줄여 나가며 현지인 리더십에
양도해야 하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저희가 원하는
때에 저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찾아 온 건
아니지만 현지인 리더를 키우고 책임을
맡기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한
과제임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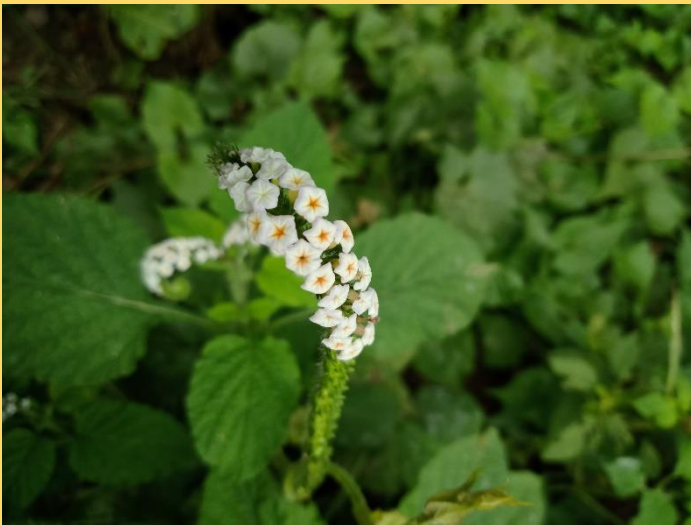
그 가운데 참 감사한 일은 저희 병원에서
성장한 몇몇 젊은 그리스도인 의사들이
돌아와 병원에서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본을 따르는
참된 리더로 성장하는 일을 돕는 것, 그것이
저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고,
돌아 간 후에 기도하며 가장 마음을
쏟아야 하는 사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주니어 닥터들이 서로의 코로나 가운을 입혀
주는 모습입니다.)

요즘은 땅에서 일어 나는 많은 일들이
저희를 낙심하게, 때론 슬프게도 하지만
자꾸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연습,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 때 실제로 눈을 들어 하늘을, 산을 바라
보는 게 큰 도움을 주는 걸 경험합니다.
점점 더 푸르러 가는 하늘, 조금씩 아름다운
색을 입어 가는 산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허락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실지도 모르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눈을 들어 바라 본
하늘 가운데 또, 마음의 눈을 들어 바라 본
주님께로 부터 오는 위로와 힘을 얻고
주님이 그 시간 가운데 숨겨 놓으신
아름다운 보화들을 발견하시길 온 맘으로
기도합니다.



(머지 않은 미래에 저희 병원 구석구석에 피어난 이
아름다운 꽃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드리며,

2020 년 10 월

신창은, 태희 올림

기도해 주세요!

1. 지금 주어진 기다림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잘" 기다릴 수 있도록, 기다림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저희들의 신원조회 및 비자를 위해
현지에서 애쓰고 있는 사역자에게
힘과 위로, 지혜를 허락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3. 저희가 떠나 있는 동안 내과를 이끌고
있는 현지인 의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참된 리더로 세워져 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4. 둘째 딸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저희에게도 딸에게도 기쁨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둘째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직장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